

시대 · 사상별로 살펴 본 불교...목적은 '하나' 방법은 '다양'

■ 불교의 궁극적 목표는 무엇일까?

여행자가 목적지와 여정을 바로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구도나 학문의 길을 걷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불교가 지향하는 목표와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을 성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초기불교·유식불교·밀교·천태불교·조사선의 관점에서 불교의 궁극적 목표와 여정을 탐색한 세미나가 열려 주목을 끌었다.

'우리 모두의 행복을 가꾸는 밝은 사람들(소장 박찬욱)이 12월 1일 개최한 제4회 학술연찬회는 '불교와 상담'을 위해 실용적·합리적·실용적 차원에서 불교의 궁극적 목표를 논한 자리였다.

□ 열반과 해탈은 불교의 이상과 실천을 대변하는 것 - 초기불교

임승택 교수(경북대)는 '초기불교의 깨달음과 실천'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불교의 궁극 목표를 깨달음과 열반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내용을 살폈다. "최근의 초기불교 동향이 다원주의적 관점과 방법론을 수용하고 있다"고 말한 임 교수는 "깨달음에 관한 어느 의견을 수용하더라도 사성제라는 큰 틀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성제는 불교의 가장 원초적인 실천론이다. <전법륜경>에 따르면 고성제는 모든 것이 고통임을 말하며, 집성제는 그것이 갈망에 의한 것임을, 멸성제는 갈망에 대한 남김 없는 버림을 말한다. 도성제는 거룩한 여덟가지의 길이다. 바른 견해, 바른 의도, 바른 언어, 바른 행위, 바른 삶, 바른 노력, 바른 마음지킴, 바른 삼매의 팔정도다.

임 교수는 "사성제의 세 번째 항목인 고평성제는 열반을 가리킨다"면서 "고성제와 고평성제의 체계는 무상·고·무아에 대한 통찰 수행을 위주로 하는 일반 제자들의 실천영역에 속하는 이치적 능력을, 고평성제와 고평도성제의 체계는 열반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을 의도하는 선정수행 위주의 신비주의적 흐름에 상응되는 심리적 안정을 뜻한다"고 역설했다.

열반은 '행복한 상태로서의 열반'과 '부정적 개념으로서의 열반'의 두가지로 나누었다. 그는 '행복한 상태로서의 열반'을 "선정 체험을 중시했던 신비적 경향의 수행자들에게 친화적인 열반의 모델"로 봤다. 이것이 부처 자신의 체험일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를 보였다. 반면에 '부정적 개념으로서의 열반'은 욕망·분노 등의 번뇌가 소멸

된 상태로 한정된 이치적 능력에 배대했다. 임 교수는 열반을 행복한 상태로 규정할 경우 궁극적 경지를 일시적이고 주관적 체험의 영역에 한정하는 과오를 범할 수 있다는 지적 등을 들었다. 그는 열반의 성취에는 아무런 초경험적 인식도 필요 없다는 칼무과하나 교수(하와이대)의 견해를 빌어 열반의 부정적 개념에 손을 들었다.

임 교수는 열반에 대한 다양한 유형들이 갖는 의미를 "제자들을 위해 부다가 독자적으로 고안한 가장 불교적인 것이며 초기불교 전체의 이상과 실천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 <섭대승론>은 통합적 불교 수행론 - 유식불교
김성철 교수(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는 '유가행과 수행도'를 통해 <섭대승론>의 가행무분별지를 중심으로 유식의 수행에 대해 설명했다. 가행무분별지는 <섭대승론>의 3종 지혜론 중의 하나다. 3종 지혜론은 견도 즉 초지에서 발생하는 최초의 해탈적 통찰로 견도에서 끊어야 할 번뇌를 끊는 근본무분별지와 근본무분별지를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수행도의 성격을 갖는 가행무분별지, 근본무분별지를 획득한 후 새롭게 얻는 청정한 세간지를 정하는 무분별후득지를 뜻한다.

김 교수는 "가행무분별지는 본질적으로는 분별을 동반한 지(智)이나, 근본무분별지의 원인이라는 의미에서 문후습과 여러자의(의인)가 포함된 무분별로 명명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문후습(聞薰習)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진실에 눈뜰 수 있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뜻하고, 여러자의(伽理作意)는 '현명한 고찰'로 이해된다.

앞서 임승택 교수가 열반을 설명했던 긍정, 부



밝은 사람들이 주최한 학술연찬회에 참가한 참석자들. 왼쪽부터 좌장을 맡은 미산 스님, 임승택 교수, 김성철 교수, 김정 정사, 이기운 교수, 월암 스님.

정의 열반 개념에 이어 김 교수는 "<섭대승론>의 의인(意言)을 대가로 '부정적-지적' 계통의 수행법과 '긍정적-신비적' 계통의 수행 모두를 통합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 삼밀수행은 즉신성불의 성취를 위한 것 - 밀교

경정 정사(진각종 교육원장)는 '밀교의 수행차제와 증과' 발표에서 최고 진실을 일체지지로 표명하는 밀교의 수행차제와 그 증과를 정리했다. 경정 정사는 "보리심이 밀교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며 보리심의 생명적 파악이 금강살타의 개념"이며, "금강살타의 전체적인 인식에서 비로자나불의 교설이 나온다"고 말했다.

또 "비로자나불의 정연한 활동상이 만다라이며, 만다라를 수행 관법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삼밀수행"이라고 발표해 밀교의 교리와 수행차제가 보리심-금강살타-비로자나불-만다라-삼밀수행을 보았다.

삼밀수행은 중생이 신구의(身口意)로써 부처의 신구의를 상징하는 진언·인제·형상을 각각 염송과 결인, 관상의 방편으로 부처와 합일하는 수행법이다. 경정 정사는 밀교 수행의 증과를 "중생이 현생의 몸으로 성불하는 즉신성불을 성취함에 있다"고 주장했다.

□ 법회는 돈점(頓漸)을 포섭하는 가르침 - 천태불교

천태학에서는 불교의 궁극적 목표를 어떻게 설명할까? 이기운 교수(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는 '법화 천태학에 있어서 인성고의 해탈과 불도의 완성'을 통해 천태학의 해탈과 불도를 위한 수행법을 발표했다.

이 교수는 "<법화경>에서 부처님이 일대사인연으로 세상에 오셔서 일체중생으로 하여금 불지견을 열어 보여 깨달음에 들게 했다"는 '일대사인연설'을 시작으로 "개권현실(開權顯實)의 취지에서 중생에게 사제와 십이인연법, 육바라밀법을 주어 생사고를 제거하여 불도를 이루게 했다"는 논지를 펼쳤다. 개권현실의 권(權)과 실(實)은 방편과 진실을 뜻하며 흔히 달(진실)을 가리키는 손가락(방편)에 비유된다. 개권현실은 즉 방편이 열립과 동시에 궁극의 진리가 드러난다는 말이다.

<법화경>이 불교의 궁극적 목표를 위해 제시하고 있는 수행법은 "개권현실의 교의에 의해 삼승법으로 중생들의 인성고를 벗어나게 하고 일승법으로 구경의 불도에 들어가게 한다"는 것이 이 교수의 주장이었다. 또 "천태의 수행은 점차지관·부정지관·원도지관의 삼종지관을 실천하는 점(漸)과 돈(頓)을 아우른 원교 실상을 지향한다"고 설명했다.

□ 일념을 수행하면 자신이 부처 - 조사선

월암 스님(벽송사 주지)은 '조사선의 수행과 깨달음' 발표에서 조사선을 "일념을 수행하고 일념을 깨닫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물고기가 용이 되어도 몸에 있는 비늘은 변하지 않고, 범부가 성인이 되어도 인간의 모습은 바뀌지 않는다"는 옛 조사스님의 말씀을 인용한 스님은 "이 말은 곧 번뇌가 보리이며, 생사가 그대로 열반이고, 중생이 바로 부처이며, 깨닫기 전이나 깨달은 후나 자리타의 보현행원이 변함 없음을 강조한 말"이라고 풀이했다. 한편 스님은 선수행자들에게 "수오일여(修無一如: 수행과 깨달음이 하나의 실천을 통해 선의 생활화를 이루자"고 당부했다.

밝은 사람들의 이번 학술연찬회는 지난 봄 고·집성제에 이어 멸성제와 도성제를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였다. 초기불교·유식불교·밀교·천태불교·조사선은 그 궁극적 목표를 밝힘에 있어 표현과 모습은 다를지언정 부처가 되기를 궁구하는 목표는 한결 같았다. 어느 가르침이, 또 어떤 수행법이 우위라고 할 것도 없었다. 참석자들은 2500여년 불교의 흐름 속에서 일반만화(一法萬化)하고 만법귀일(萬法歸一)한 부처님의 현묘한 가르침을 보았다. 조동섭 기자

태현과 법해의 '신통 겨루기'...일연 스님의 '판정'은?

남무희씨 한국역사연구회 세미나서 '일연의 불교유식관' 발표

<삼국유사>에는 신라 경덕왕 무렵 가뭄을 해결하고자 태현 스님과 법해 스님이 각기 비를 청했던 사실이 나온다. 먼저 태현 스님은 가뭄 때문에 재를 올리는데 맑은 물을 올리지 못하자 법문을 하면서 항로를 받들고 있었더니 우물물이 높이 솟았다고 한다. 그

이듬해 왕은 법해 스님을 모셔 <화엄경> 강의를 청하면서 태현 스님이 우물물을 솟게 한 사실을 언급했다. 법해 스님은 "작은 일인데 그리 칭찬하느냐"며 <화엄경> 강독을 했고 그 순간 동쪽의 못이 넘쳐났다. 그 물은 내전 50여간을 때려내 보냈다. 또 멀리 갈은사

에서는 바닷물이 넘쳐 불전의 계단 앞까지 왔었다.

이 이야기를 소재로 <삼국유사>를 편찬한 일연 스님의 불교유식관에 대한 논문이 발표됐다. 남무희(국민대 강사)씨는 <삼국유사> 의해된 현유가화엄조에 보이는 일연의 불교유식관을 주제로 한 발표에

서 <삼국유사> 의해된 현유가화엄조를 인용해 일연 스님의 불교유식관을 정리했다.

남씨는 일연 스님의 불교유식관에 대한 관점을 <삼국유사> 의해된 기록된 분류의 차이에서 시작했다. 남씨는 일연 스님은 "다른 승전에 전하거나 따로 전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 자료에 없는 내용을 중심으로 의해편을 구성했다"는 종래의 학설에 주목하면서 <삼국유사>에 수록된 사실은 물론 다른 자료에서도 쉽게 찾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태현 스님과 함께 유식불교인 신라 법상종을 대표하는 진표 스님은 '진표전간' 등을 통해 상당량 언

급되고 있다. 하지만 태현 스님에 대해 기술한 '현유가화엄' 조는 상대적으로 소략해 있다"고 주장했다. 태현 스님에 관한 기록이 소략된 것은 "회임을 유가의 우위에 놓기 위해 의도적으로 누락시켰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씨는 유가와 화엄의 대립과는 별도로 "미륵과 아미타를 모시는 태현계 법상종의 법맥이 공예에게 전해져 공예의 물락과 함께 쇠퇴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일연 스님이 <삼국유사> 편찬 당시의 불교 관에서 크게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이 남씨의 주장이다. 조동섭 기자

공익법인 대한불교 종단진흥 총연합회 부설 전문강원

중앙불교대학원 학인(승려, 행자) 모집

- ◆ 모집학과 : 사미과 6개월 과정 (3개월 기본교육 - 습의, 3개월 통신교육)
- ◆ 원서접수 : 2008년 1월 5일까지 ◆ 개강일시 : 2008년 1월 7일 (월요일)
- ◆ 제출서류 : 입학원서, 주민등록등본 1본, 사진 5매
- ◆ 자격요건 : 강원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스님이 되고자 발심한 초심자(행자)로 나이 학력불문
- ◆ 특 전
 - 6개월 기본교육 이수 후 사미계 수계득도 하도록 지도하고 사찰(포교원) 장건 시 초심자라도 여법히 법회를 병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합니다.
 - 졸업 후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이 지속됩니다.
- ◆ 사미과 교수 : 현봉 (통도사 출가, 보광선원 금당선원, 現 무사암 주지)
- ◆ 특강교수 : 법봉, 무승, 마정, 법인, 구화, 법천, 지고, 덕진 대령스님 등
- ◆ 수강료 : 일백오십만원(지도비, 삼개월 숙식제공)
- ◆ 문의처 : 본 대학 사무국 (대표전화 031-676-0908 팩스 031-676-0206)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신장리 산 44번지

서울 접수처 : 02)496-3951 마정 부산 접수처 : 051)335-2210 법봉
 경북 접수처 : 011-548-3664 법인 호남 접수처 : 011-619-1322 법천
 경남 접수처 : 055-583-8170 무승 강원 접수처 : 033-342-6940 지고

공익법인 대한불교 종단진흥 총연합회 부설 전문강원 중앙 불교 대학원

